



**이남숙 전주시의원, 필수노동자 캠페인 참여**

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이 12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익 캠페인이다. 이날 이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역 사회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하는 필수노동자 덕분"이라며 "보건 의료, 돌봄 안전 운송·배달 등에 종사하고 계신 필수노동자분들의 권익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프닝 전북도의회 의원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이 의원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과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원을 지명했다. /김윤상 기자

**동서학동 새샘노인복지센터, 백미 기부**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새샘노인복지센터(원장 김용진)'는 지난 9일 동서학동주민센터(동장 신종수)를 방문해 관내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10kg) 32포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관내 통합돌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진 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내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번거 없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더욱 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착한가게' 현판 인증**

크린토피아 전주지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기부 동참

전주시 완산구 효재동(동장 신인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상권)는 지난 9일 CMS 정기 후원을 신청한 크린토피아 전주지사(대표 김용진)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효재동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에 '착한가게' 현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김용진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사랑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움을 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신인식 효재동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웃들을 위해 정기적인 기부에 함께해주시는 크린토피아 전주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한사랑 박석재 이사장 초청 역사·문화특강**

'천손에 살아라'를 주제로 한 대한사랑 박석재 이사장 초청 역사·문화 특강이 최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특강은 코로나19 팬데믹 2단계 상황에 맞춰, 강의실 사전 소독과 발열체크, 한자리 띄어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박 이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정치·종교·자연·학연·빈부등과 무관하게 역사광복을 글로벌 방향으로 추진하며, 전세계 배달민족에게 하루 빨리 올바른 역사관을 계몽하는 대업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이며, 대한사랑의 갈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사랑도 외국인 회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A씨는 "역사광복군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남원시, 상반기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개강**

남원시는 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이 주관하는 2021 상반기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12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남원시 보건소 옆 평생학습관에서 12일 전 광덕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수정 센터장의 '왜 사회적기업인가?'라는 제목의 오프닝강의를 시작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절차에 대해 10년 넘는 현장 활동경험을 바탕으로한 생생한 실무 강의가 진행되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대한 실제 경험을 직접 전달하는 '선배들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사회적경제아카데미의 수강생은 마지막 날인 16일, 남원시 사회적경제팀이 아카데미와 별도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컨설팅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전문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일자리경제과 김재연 과장은 "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부족과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하는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주체들이 육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원광대 의대 석승한 교수 대한신경과학회장 선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의과대학 석승한(산본병원 신경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평의원회에서 차기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1982년 출범한 대한신경과학회는 2,500여명의 신경과 전문의가 회원으로 있는 학술단체로서 차기 회장 임기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다. 석승한 차기 회장은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노인신경과학회장,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운영 안산신립노년전문병원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했다. 또한, 2007년부터는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뇌건강 증진을 위해 안산시 뇌졸중·치매 예방사업단을 설립해 2017년까지 사업단장을 역임하고, 2013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3대원장을 역임하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견고한 정착에도 기여 했다. 석승한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을 포함한 신경계 질환의 발생빈도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보건 의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포함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해 대한신경과학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가 의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의료 정책 조안자로서 중심 학술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정양현 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4년 11월 23일 등록(약간)  
(주)매일신문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388-65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633-6989
삼천포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4227	임실지사 010-9942-2725
사신지사 272-9417	송촌지사 255-2404	안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3-3364
호지지사 010-6945-9936	팔복지사 253-694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636-3767
	군산지사 010-6739-0336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322-6157
	익산지사 653-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농협·범농협 봉사단, 어르신택 도배·장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2일 범농협 노블사회공헌봉사단(회장 이계순)과 함께 완주군 고산면의 홀몸 어르신택을 방문하고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농협 직원과 노블봉사단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이날 봉사에서 참석자들은 노후된 주택의 흠뻑과 장판을 교체하고 집안을 정리하는 등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거환경개선을 받은 어르신은 "겨울동안 곰팡이 피고 눅눅했던 벽지도 발라주고 장판도 깨끗하게 바꿔줘서 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